

문화전당·혁신도시·무안공항 활성화...광주·전남 머리 맞댄다

상생 기구 신설, 에너지벨리·스마트팜도 추진

현안 넘치고 예산은 열악...넘어야 할 산 많아

광주시와 전남도가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시·도 상생을 위한 첫 과제로 '상생추진 기구 신설'과 '신 영산강 시대 발전정책 수립' 등 7개항에 공식 합의해 관련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시·도 모두 열악한 예산여건 속에서 해결할 과제 현안사업은 넘쳐난다는 점에서 상생사업들이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신 영산강 시대 광주·전남 상생발전 정책 수립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 관광 활성화 대책 ▲빛가람 공동혁신도시 활성화 ▲제2남도고속 건설 ▲무안공항 활성화 방안 ▲한빛(영광)원전 안전성 확보 ▲광주·전남 발전연구원 역할 제고 등 7개항에 합의했으며, 빠르면 8월 내에 이를 추진할 광주·전남 상생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필요하다면 산하에 시·도의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도 제정할 계획이다. 대신 기존 광주·전남광역행정협의회는 없어진다.

시·도는 이번에 합의된 7개항과는 별도로 MB정권 시절 4대강 사업으로 영암이던 영산강 복원 추진, 빛가람 공동혁신도시 인근 '에너지 벨리' 조성, 광주·전남 접경지역에 과학영농단지인 스마트 팜 조성, 장성 나노기술산업단지내 국립심혈관 센터 건립, 광주·전남 이미지 개선 및 창조사업, 광주·전남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발전계획 수립 등 6개항도 추가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도 상생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우선 사업의 지속성이다. 시·도 모두 '발등의 불'인 현안사업이 많은 탓에 시·도 상생 사업 추진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민선 5기때도 초반에는 광주·전남광역협의회를 통해 상생을 위한 여러 문제를 협의했지만, 2011년 9월을 마지막으로 3년여 동안 중단됐다.

예산도 문제다. 한 예로 제2 남도고속 건설은 수백억원대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지만, 사업비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개관 20년을 맞은 남도고속도 지난 1989년 건립 당시 시·도민 17만명이 성금을 내고, 광주시와 전남도 및 일선 시·군·구청이 예산을 보태 278억원의 건립비를 겨우 마련했다.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땅값은 물론 건축비 등도 크게 상승해 제2 남도고속 건설에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도는 정부지원 방안 등을 검토중이지만, 타지역과의 형평성 등으로 실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민선 5기 내내 치열하게 대립해온 특정 사업의 해결도 만만치 않은 과제다. 특히 무안공항 활성화 방안은 광주공항의 국내선 이전과 군공항 이전이 함께 맞물려 있어 해결이 쉽지 않다.

시·도 관계자는 "광주·전남은 역사·문화·정치적으로 한 뿌리고, 동일한 생활·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민선시대 이후 상호 경쟁의식이 심화되면서 불필요한 경쟁과 갈등만 지속돼 왔다"면서 "민선 6기 출범에 맞춰 대립구조를 극복하고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공동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장회국 광주시교육감이 1일 취임식에 앞서 소규모 학교인 북구 지야동 지산초등학교를 방문, 배식봉사를 한 뒤 어린이와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1일 오후 전남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윤장현 시장, 첫 결재는 장애인 지원 이낙연 지사, 농수산 유통센터서 첫 행보

민선 6기 광주·전남지사들이 첫 행보로 장애인 지원과 시장 방문을 선택했다. 윤장현 시장의 첫 결재는 '장애인 지원'이었다. 윤 시장은 1일 취임 후 첫 결재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하루 24시간 활동보조 지원 건에 서명했다. 윤 시장의 첫 결재는 신체·정신적 장애 등으로 혼자서 일상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손과 발이 되는 활동보조를 오는 9월부터 하루 24시간 지원하는 것으로 특·광역시에서는 광주시가 처음이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이날 새벽 목포 석현동의 농협 농수산유통센터를 찾아 상인들과 아침식사를 하는 것으로 지사로서의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오전 11시 10분 기자회견을 방문한 그는 소탈한 자신

의 일상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취임 전날 가장 기분이 좋다"며 "인생에서 그런 적이 몇 번 있는데, 대학 입학 바로 전날, 결혼식 바로 전날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비교했다. 남약으로 주소를 옮겨 생활의 터전을 만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박준영 전임 도지사에게 이발소 추천도 받아줬다는 이 지사는 "강운태·박준영 시대에서 윤장현·이낙연의 시대가 된 뒤 가장 첫 변화는 '직모'가 '곱슬머리'로 바뀌었다는 것"이라며 "윤 시장이 더 심하지만 저도 고건 전 총리 이후 오랜만에 취임하는 '곱슬머리 도지사'"라고 농을 던지기도 했다. /채희종기자 chae@/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비서실장 오주승 대변인 방욱길 광주시비서관 김용환



오주승 비서실장 방욱길 대변인

이낙연 민선 6기 전남지사가 1일 취임과 동시에 첫 인사를 단행했다. 개방적 비서실장에 오주승 전 전남도 중소기업지원센터 본부장을, 대변인에 방욱길 전남도 세정담당관을 내정했다. 선거캠프에서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총괄한 오 전 본부장을 비서실장에 얹혀 공직사회와 도지사 사이의 가교 역할을 맡도록 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오 전 본부장은 박준영 전 지사 재임 시절인 지난 2009년 전남도 대변인을 역임해 공직사회를 겪었고 6·4 지방선거에서 중랑갑 있는 역할을 제대로 소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취임 전 대변인과 비서실장을 내

정한 윤장현 광주시장도 이날 5급 정무직 비서관으로 김용환씨를 내정했다. 김씨는 선거캠프에서 윤 시장을 보좌한 인물로, 민선 6기동안 한시적으로 광주시장 보좌 업무를 맡게 된다.

시 관계자는 "비서실장(4급)과 비서관(6급)은 내부 공무원을 배치하고, 비서관은 (시장의) 업무시간 외에도 지근거리에서 보좌할 수 있는 외부 인을 내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5개 구청장 취임 첫 날 표정



민선 6기가 출범한 1일 광주지역 각 구청장들도 구청 등지에서 색다른 취임행사를 연 뒤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노희용(맨 왼쪽) 동구청장과 최영호(가운데) 남구청장은 직원 정례회로 취임식을 대신했으며, 임우진 서구청장(왼쪽 두번째)과 민형배(맨 오른쪽) 광산구청장은 배식봉사로 같음했다. 송광운(오른쪽 두번째) 북구청장은 대한노인회에서 '고령화시대의 행복한 노후생활'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광주시 각 구청 제공>

밝은광주안과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 부작용: 수술 초기 야간 빛번짐, 노안라식 수술시 건조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협을 알아야 재테크의 완성!

1인당 예금비과세
3,000만원
(생계형 / 세공우대 별도)

대출한도 **25억원**

한도는 높게 ▶ 최대 ~80%
금리는 낮게 ▼ 최저 4.3%~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공동본점 | 금호지점 | 품암지점

NAVER **간이형 단비플라워** 등 **겨울이제**

단비플라워

죽아화환3단 근조화환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의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